

못 생명을 살리는 구세주가 빨리 되어라

모든 경전을 통달한 이긴자

어제 아버지날 행사 도중에 강한 이슬이 무지개 모양으로 내리는 것을 우리 일본 식구들이 다 눈으로 본 것이옵시다. 말로만 감로수, 감로해인, 이슬이라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감로수가 내리는 것을 유사 이래 이런 사실이 없었던 거죠? 불경에서는 감로수를 들고 나오는 자가 생미륵불이라고 했고 격암유록에서는 감로해인을 들고 나오는 자가 정도령이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이슬성신을 내리는 자가 곧 구세주라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로 이제그대로 구세주가 생미륵불이요, 생미륵불이 정도령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이 세상 종교가들이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면 그들은 자기네 종교가 제일이고, 자기네 종교가 정통과 종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 고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경을 안 보죠? 불경 속에 성경 말이 있고 성경 속에 불경 말이 있는 것을 이제그대로 이 승리제단에 와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승리제단은 불경과 성경과 격암유록 여러 가지 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그대로 부산에서 어제 새로 온 새 식구가 이 사람 얼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더라. 어떤 때는 장군 얼굴로 변하고 어떤 때는 보통 사람의 얼굴로 변하고. 어떤 때는 그 얼굴이 이 세상 사람 얼굴과 같지 않게 변하는 거죠? 아버지 날이라고 열일 백일 제쳐놓고 그 담배 피는 사람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한 시간 예배 불동안 담배가 굉장히 피고 싶었던 모양이야? 나가서 다시 들어오면 또 담배를 못 피니깐 그냥 몽땅 한꺼번에 세 대를 피더라. 담배 피우 본 사람들은 대략 알지만 담배를 갑자기 끊으려면 못 끊는 모양이예요. 마치 어떤과 같아가지고 이제그대로 그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못 피우면 몸에서 담배가 땀기는 모양이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하고 찢 리는 없죠? 이 사람하고 결탈할 수는 없죠? 그 사람 입으로 말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세주의 얼굴이 변하는 이유

이 사람 얼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마귀를 죽이죠? 마귀를 죽이니까 주체 영이 바뀌죠? 마귀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얼굴과 마귀가 죽은 다음 다른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의 얼굴이 다른 거야.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의 영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는 가운데에 보게 되면 먼저 마귀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제 이제그대로 이슬이 내리는 걸 일본 사람 아오기 상과 오카오 상 등 셋이서 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려면 보여주고 보지 못하게 하려면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사람 몸을 입었으니까 똑같은 사람인줄 알지만 똑 같은 사람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제그대로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한 거죠?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먹기에 달린 것인 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되고 마귀의 마음을 먹으면 죽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죽는 사람은 죽을 짓을 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살 짓을 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죽을 짓을 해서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죽을 짓을 하면 죽게 돼 있고, 영생할 짓을 하면 죽을 수가 없어.

남녀간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영생의 사랑, 하늘의 사랑이 되려면 시간 시간이 희생적인 마음.. 아가 '어떻게' 찬송가에 사랑은 희생이 따른다고 했는데 최악 세상에서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희생이 사랑이야. 아시겠어요? 남녀간의 사랑도 희생이 없는 사랑은 오래 갈까, 오래 못 갈까? 오래 살지 못하고 왜 이혼하는 줄 알아요? 희생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해주는데도 나한테 왜



구세주 조희성님

주는 것도 없고 사랑도 안 해 줄까? 그러니까 서로 비뚤어져가지고 틈이 저가지고 부부가 원수처럼 지내. 둘이서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죠? 부인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은 부인을 속여가지고 서로 속이면서 살아요. 안 속이면서 살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떤 나라든지 똑같아.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승리제단 나오는 날부터는 두 가지 마음을 버리고 미워하던 남편과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회생을 할 때에 안 믿는 부인이 따라오게 돼 있고 안 믿는 남편이 부인을 따라서 제단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회생이 없이는 전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빵도 사줘야 되고, 과자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이제그대로 자기 자신이 마귀 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빨리 탈출해 나와야죠? 탈출해 나오려면 마귀가 시키는 것과 반대로 움직여야죠? 이 사람이 간중할 때에 반대생활 했다고 했죠? 일하기 싫으면 일을 해야만 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이제그대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반대생활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나라는 주체의식이 약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죽어버리는 고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났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진 거야.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이 세상에 아무리 이제그대로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 사람을 아무리 욕하고 모략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 마음 속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 눈에는 미운 사람이 눈에 띄질 않아요.

홍보는 사람 얼굴은 마귀얼굴로 변해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아무개가 어찌고 뻔뻔 죄만 짓고 어찌고 하면서 홍보는 사람이 있는데 홍보를 봐도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 이해가 가질 않는 거야. 옛날에는 어찌고 어찌고 이르면 그냥 내 쫓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라는 사람은 암만 일러도 화

도 내지 아니하고 내 쫓는 법이 없으니 당최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완전히 마음 상태가 달라. 아시겠어요? 암만 홍보를 봐도 이 사람은 안 미워해. 헛수고야. 홍보지 말아, 이 사람한테 와서. 아시겠어요? 이 사람한테 와서 아무개가 뭐 어찌고, 어찌고 해 봐야 그건 헛 거야. 이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왜 그러냐면 못마땅한 마음으로 홍보를 보죠? 홍보는 사람 얼굴이 마귀 얼굴이야. 너는 마귀새끼고 홍보는 그 대상자는 조금 너보다 나.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참말로 이제그대로 남의 홍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홍보를 보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얼굴이 마귀 형상으로 변하죠? 그리고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처럼 여겨야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면 우선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이 마음이 기쁘죠?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죠?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공기를 마시게 해 주시고 밥을 먹게 해 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해, 안 감사해? 제단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저절로 기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을 해야죠? 그래야 감사한 마음이 계속 나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로 감사한 그 보답을 하나님에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기뻐하죠? 기쁨의 신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는 고로 계속해서 기쁜 고로, 하나님이 기쁨의 신이요, 사랑의 신이요, 회생의 신이므로 하나님의 회생의 마음이 폭발 돼 가지고 쏟아지는 은혜가 이슬 은혜죠?

이슬은혜가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 사람의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죽지 않고 성불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

기록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영, 마귀를 죽이는 영인 이슬은혜를 받기만 받으면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다 죽고 내 속에 있는 피가 점점 맑아져, 안 맑아져? 하나님의 피로 변화하죠? 하나님의 피로 변화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폭발 돼 가지고 솟구쳐 나오는 고로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점검해야

내가 현재 마귀 편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내 마음을 점검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립을 해야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만 하면 그는 이제그대로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영생의 몸으로 변하는 거죠?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는 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간 시간이 품는 것이 급선무요, 해야 할 책임인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자신이 구원을 얻고 나가서는 세계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구세주가 되어야 세계 만민을 구원 할 수가 있는 거지 구세주가 안 돼가지고는 세계 만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하신 영이 점점 많아지면 승리의 영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면서 마귀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완전히 마귀 세상을 돌려요? 그러면 죽음이 없는 세상 이제그대로 슬픔이 없는 세상, 공포와 불안과 걱정 근심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성령으로 거듭난 승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그대로 못 생명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어야 되겠죠?*

1992년 5월 9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6) 금송아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후, 백성들이 모세를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았 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아론에게 물려와서 소리소리로 질렀습니다.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으니 그 대신 우리들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경건(敬虔)한 아론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론과 레위 자손들이 자신의 청을 거절하자 더 이상 아론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의 지도자를 새로 뽑아 세웠습니다.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이 세운 지도자는 유다 자손에 속하는 갈미입니다. 아간의 아버지 갈미는 세라 후손이며, 세라는 그의 아버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낳은 쌍둥이 중 하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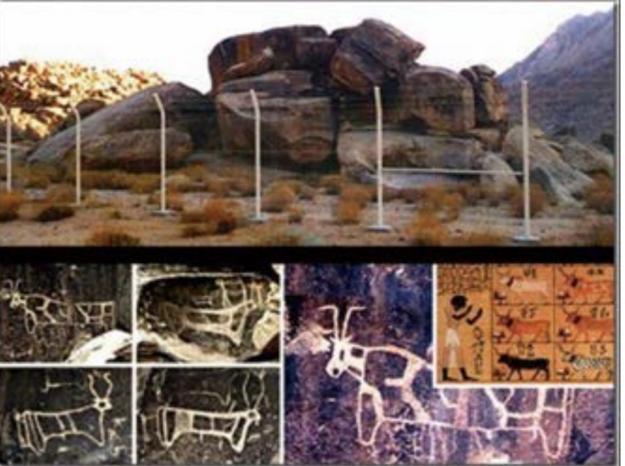
역대상 2절 7절 갈미의 아들은 아간(아갈)이나라 저는 마땅히 멸한 물건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갈미는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아론에게 달려가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가 유다지파의 권문세가에 속하는 암미나답의 딸이자 나손의 누이라는 사실을 알고 뒤로 물러섰던 것입니다. 또 아론의 친족인 단지파 사람들이 아론을 보호하였습니다. 레위지파와 단지파 이들 두 지파가 제외된 채 나머지 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갈미가 외쳤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사람들은 모두 금 귀걸이를 풀어서 갈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갈미는 이 귀걸이를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자

《6장 40년의 광야생활》

(6) 금송아지

가네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神)이라고 했습니다. 갈미는 금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을 죽이고 재물을 금송아지에게 바치고 나서, 먹고 마시면서 또 춤도 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 대신 하나님으로 삼고 예배하며 제물을 바치노니, 참으로 내 보기에 이 백성들이 목이 곧고 이다지도 빨리 율법을 벗어나는 족속이로다. 나는 이때까지 그들을 참고 보아 왔지만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너만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운 생각으로 하나님께 간곡히 애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산과 들에서 없애 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노여움을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자손을 이 땅 위에 별처럼 불어나게 하시겠다고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이런 간절한 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려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모세는 두 장의 석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입니다. 하산하던 모세는 산중턱에 여호수아가 홀로 그 자리를 지키며 모세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사산 아래 금송아지 제단 암석에 애굽의 암소 모양의 어머니 여신 하트호르(Hathor)가 새겨져 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낸 날이 이삼일 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며칠째 여기서 밤낮을 지새우며 나를 기다렸느냐?"하고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이 꼭 40일째 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부터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백성들이 걱정되어 한번 내려가서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지 여호와께 기도도 여쭙고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두 사람이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를 사십 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 하였더니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